## 회요세평

# 용돈과 청소년수당

황수주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추석 연휴가 끝났다. 명절은 왜 1년에 2번이나 있는지?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 용돈과 친척분들 선물과 조카들 용돈까지 준비하다 보니 명절이면 뭔가 탈탈 털리는 기분이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명절 때 용돈으로 1만원을 주면 곱지 않은 눈빛을 보낸다고 한다. 용돈을 주는 사람은 성의껏 준비를 하지만 차마 1만원을 내밀기가 쉽지 않다. 적어도 황금빛의 5만원권이라도 내밀어야 위신이 서는 요즘이다. 5만원권의 지폐가 나오면서 돈 씀씀이가 예전 같지 않다. 고액권이 나오다보니 돈의 가치가 떨어져 돈 씀씀이가 훨씬 형편 없어진 것이다.

한 학생복 업체에서 청소년들에게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물었을 때 '용돈 줄게'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다. 청소년들에게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오랜만에 친척들과 만나며 인사와 덕담을 나누기 보다는 친척들에게 얼마나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뜨게 하지 않나 싶다. 청소년들의 용돈에 대한 생각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 청소년들의 생활환경 그 자체가 돈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항상 용돈 부족하다고 느껴

아침에 학교 가면서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사 마시고, 오후에 하교 후 PC방에 들러 게임을 하고 출출하면 편의점이나 분식점에서 간식을 사 먹는다. 주말에는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친구를 만난다. 그래서 각자 분담해서 계산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카페에서는 종업원의 눈치가 보이지만 음료 한 잔만 시켜놓고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적은 용돈으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자체도 부담인 것이다. 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스터디카페를 가야 하는 데 그 돈도 만만치 않다.

광주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실시한 '2021 광주시 청소년 소비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이 받는 한 달 용돈은 7.9만원이었다. 고등학생이 9.7만원, 중학생이 4.7만원이었다. 한 달 평균 용돈으로 5~10만원 미만을 받는 응답자가 28.2%로 가장 많았으며, 3~5만원 미만 18.1%, 10~20만원 미만 17.9%, 1~3만원 미만 11.7% 등의 순이었으며, 용돈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1%였다. 현재 용돈이 충분한 지를 조사한 결과 68.4%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올 1월부터 경남 고성군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13~18세의 모든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인 정책으로 청소년수당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5세에게 월 5만원, 16~18세에게 월 7만원을 현금형태의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교육·문화·진로체험·건강 등과 관련된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 학부모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 청소년 인구의 증가와 외부 인구 유입 또한 늘어났다고 한다.

지난 9월 4일에는 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꿈드림청소년단, 아동·청소년의회가 함께 주최한 '광주시 청소년통합복지카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성군의 사례를 발표한 고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바우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곳은 카페, 음식점, 서점, 문구점, 미용실, 편의점 등이며,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서점이라고 했다. 바우처 카드 쓰기 전에는 원하는 것을 위해 돈을 아껴서 쓰는 경우가 많았고, 책을 살 때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돈이나 카드를 받은 후에 구매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한다. 바우처 카드를 쓰면서는 책을 사고 싶을 때 바로 구입이 가능하고, 먹고 싶은 간식도 먹을 수 있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한다.

### '청소년통합복지카드' 추진

지난해부터 광주시 청소년참여위원들은 '청소년통합복지카드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꾸리고 정책제안 활동을 펼쳤다. 청소년통합복지카드는 지난 해 '광주시 청소년 10대 청소년정책제안 원탁토론회'에서 1위로 선정됐다. 청소년의 교육활동, 문화·진로체험, 건강증진 등을 위해 통합 지원하는 청소년 복지정책으로 청소년수당이 골자이다. 늘 용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당이 지급된다면 문화 및 여가 활동의 증가, 부모님의 부담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만 13~15세 청소년에게는 월 5만원, 만 16~18세의 청소년에게는 월 7만원을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한다. 우리 청소년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한다.

# 정타로 가는 스윙

골퍼들은 최고의 샷을 원한다. 운칠기삼을 생각하며 라운드마다 스윙의 기적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연습스윙만큼 실제 스윙이 나온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설상가상 원하지 않는 샷에 동반자의 완벽한 샷까지 불안의 연속이다.

진짜보다 좋은 가짜는 무엇일까? 연습스윙이다. 우리는 가짜를 경원시하고 짝퉁을 허접하게 생각하지만 골퍼에게는 가짜를 닮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 골프 연습장에서 하는 연습스윙이다. 명품 브랜드는 짝퉁이 진품을 닮고 싶어하지만 골프 라운드에서는 실제스윙이 연습스윙을 닮고 싶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 기차레일같은 경쟁적인 두 가지 스윙을 최대한 일치시키고 균형을 이루려면 부단한 스윙의 연습이다.

연습스윙과 실제스윙은 왜 다를까?

연습 스윙은 스윙자체가 목적인 반면 실제 스윙은 공을 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두 스윙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장소가 다르다. 연습장은 고무매트이지만 골프장에서는 천연잔디이기에 샷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목적이 다르다. 연습스윙은 근육과 관절의 웜업, 리듬과 템포를 중시하여 부드러운 스윙이지만 실제스윙은 타겟 공략을 위한 강력한 샷이다. 다음은 스윙의 궤도가 다르다. 연습스윙은 가상의 원을 하나의 원으로 그리지만 실제스윙은 적은원에서 큰원으로 그려지는 타원형 원으로 그려진다.

다음은 심리적인 긴장상태가 다르다. 연습은 편안한 상태이지만 필드는 속도감이 있는 긴장속에서 경쟁한다. 마지막으로 타겟이 있고 없음이 다르다. 타겟의 존재는 뇌의 인지 부담을 가중시킨다.

연습장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치다가, 필드에 나와서 샷을 할 때면 머리속은 온갖 생각이 가득하다. 아무리 세계적인 선수라도 이 두 개의 스윙이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 연습이 부족한 아마추어일수록 스윙의 차이는 크게 발생한다. 중계되는 투어 선수들의 스윙자세는 그림처럼 일관되지만 비기너의 스윙은 제 각각 다르고 이미지 스윙과는 너무나 다르게 휘둘러진다. 샷을 하려니 온갖 생각으로 몸에 힘만 잔뜩 들어가 있다. 연습 스윙 때 체크했던 포인트가 너무 많이 떠올라 실제스윙시는 혼란스럽다. 결국 힘으로만 마음대로 때리고 만다.

몸의 힘을 빼려면 3년이 걸린다고 한다. 이 운동은 비일비재하게도 오늘 드라이버가 잘 맞으면 아이언이 잘 맞지않고 고질적으로 취약했던 아이언이 잘 맞으면 그렇게 잘 맞던 드라이버가 맞지않고 어떤날은 퍼팅까지 말썽을 부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연습시 몸의 힘을 빼는 일은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힘빼는 일은 신체를 움직이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습훈련은 의식의 과정을 통해 무의식으로 전이되어야 한다. 무슨 일이든 경험은 전체를 볼 수 있게 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유연하게 탄력적인 피드백을 할 수가 있다. 골프에서도 구력이 뒷받침되어야 자신의 허점도 알게 되고 이를 수정하는 지혜가 생긴다. 구력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다. 이는 실제 샷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연습 스윙과 가깝게 만들어가는 능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연습장에서도 실제스윙처럼 연습하고 라운드에서는 연습스윙처럼 샷을 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골프학회부회장, 체육학박사

## 독자광장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철저히 관리해야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후 점검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은 공공기관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기관이 공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규정에 맞게 설치됐는지 사전 점검만을 언급하고 있었지만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활동을 강화해야한다.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장애인 인권교육과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해야 한다.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교통약자 접근권은 이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며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이제는 시적 복지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여건을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의 출발점이다.

평소 교통약자들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이동편의 및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시설과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다, 설사 편의시설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관리가 부실해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은 역차별을 바라거나 이기적 이익을 위한 '투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 조성을 요구할 뿐이다.

교통약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보통사람들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 주는 일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들의 운영 실태를 살피고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후 점검 제도화가 절실하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 사설

# 광주·전남 상생하는 건가 마는 건가

한차례 무산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보고회가 나주시의 불참으로 모양새가 영 아니게됐다. 용역 수행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최근 광주 김대중컨벤센터에서 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재단설립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나주시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발전 출연금 조성 방안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나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혁신도시 여건 개선에 투입한 비용을 고려하면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반발한다. 혁신도시 출범 당시인 2006년 2월 상생 차원에서 광주시와 나주시, 전남도 등 3개 지자체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과 재단 설립에 합의했으나 나주시의 계속된 반발과 전남도의 소극적인 자세로 성과 없이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시와 나주시 간 정서가 이러저러한 일로 별로 좋지 않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SRF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분쟁 등으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다시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는 계기를 맞는다. 광주와 전남이 천년을 함께해온 형제라지만 지역 이익 앞에서는 남처럼, 적처럼 변한다.

애초 3개 지자체가 상생으로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마련하자고 합의해놓고 이익충돌로 등을 돌리는 것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나주시는 이의 또는 불만사항이 있으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주장을 펴는 게 옳다. 광주시도 산업연구원의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나주시와 협의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전남도도 비켜나 있기만 해선 안 될 것이다. 언제까지 말로만 상생할 건가.

# 목포 친환경선박산업 메카 기대 크다

목포시가 최근 친환경선박산업의 중추도시로 거듭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온난화란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속에서 인류가 전기자동차처럼 선박 분야에서도 친환경 해결책을 찾고 가운데 목포시가 또 하나의 강력한 미래 성작동력을 품었다는 사실에 기대를 모은다.

전기로 운항하는 선박은 100% 전기만을 사용한다. 기존 디젤 엔진과 다르게 미세먼지, 매연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기존 LNG에 수소나 암모니아를 혼합한 친환경 연료시스템도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은 국제해사기구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전 세계적이어서 전 세계 조선·해운시장은 유류선박에서 친환경선박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해권은 1,100여척의 중소형 선박이 운항중이다. 특히 국내 연안여객선 운항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정부나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전기 선박을 연구·개발·실증하는데 최적지로서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주저하지 않는다.

목포시가 추진중인 친환경선박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와 전남도를 비롯해 목포대와 목포해양대 등 대학,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 한국선급 등 2개 공공기관, 26개 조선·기자재·해운기업 등이 참여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남항부지에 각종 인프라가 들어서고 2023년 초에는 모든 물적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연간 5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조1,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친환경선박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친환경선박산업이 목포 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자리매김 되길 기대한다.

# 광주 북구의회 상임위 있으나마나

## 기자수첩

최환준
사회부 기자

광주 북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당초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논의 끝에 삭감한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나 토론 없이 다시 되살리는 촌극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북구의회는 지난 9일 오전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예결위가 제출한 '북구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마음건강힐링키트' 예산 2,000만원의 경우 예결위에서 되살아난 뒤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앞서 경복위는 지난 3일 타 부서와 중복된 유사사업이라고 판단해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경복위 소속 의원은 "경복위에 소속된 6명 의원 전원이 집행부에서 올린 추경 예산안을 다른 부서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해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재심사 과정에서 경복위 의결과 달리 삭감된 예산을 전액 되살렸다.

그러나 속기록을 살펴보면 예결위와 경복위 소속 위원들은 재심사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나 토론도 없었다.

예결위 위원 9명 가운데 4명이 경복위 위원으로 소속된 만큼 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수결의 원칙대로 안건을 밀어 붙인 것이다.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예산 심의 권한을 본인들의 입맛대로 남용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다분한 대목이다.

이는 집행부와 각종 단체의 로비와 압력이 작용해 '거수기 의회'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결국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충분한 논의나 명확한 타당성 없이 예결위에서 부활한다는 점은 의원들 스스로가 상임위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꼴이나 다름없다.

기초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각 기초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집행부의 행정·예산 등을 감시·견제하는 기초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생색내기용이 아닌 올바른 자세로 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

| 생활정보전화 | | 긴급전화 | |
|---|---|---|---|
| ▲이주여성 긴급전화 | 1577-1366 | ▲기상예보 | 131 |
| ▲응급질병상담 | 1339 | ▲법률구조상담 | 132 |
| ▲미아·가출인 신고 |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 222-5666 |
| ▲여성 긴급전화 | 1366 | ▲광주 여성의 전화 | 363-7739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 1388 | ▲수도 고장신고 | 121 |
| ▲아동보호전문기관 | 1577-1391 | ▲전기고장 신고 | 123 |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가스사고 신고 | 383-0019 |
| ▲응급의료센터 | 1339 | |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 | | | |
|---|---|---|---|
| 정치부 | (062) 720-1060~62 | 편집부 | (062) 720-1073 |
| 경제부 | (062) 720-1066~67 | 논설실 | (062) 720-1006 |
| 사회체육부 | (062) 720-1050~53 | 전산실 | (062) 720-1033 |
| 사회2부 | (062) 720-1043 | 월간국 | (062) 720-1007 |
| 동부권본부 | (061) 743-4200~01 | 판매국 | (062) 720-1004 |
| 문화부 | (062) 720-1071 | 사업국 | (062) 720-1011,1099 |
| 사진부 | (062) 720-1040 | 광고국 | (062) 720-1016~17 |
| 기획탐사부 | (062) 720-1045~46 | 관리국 | (062) 720-1012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 TEL (062) 720-1050~53
• 사회부장 010-5601-2219
• FAX (062) 720-1080
•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 TEL (062) 720-1016~17
• FAX (062) 720-1020
• E-mail jnmi1000@hanmail.net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